



세 계 초 연 · 전 지 구 생 방 송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 기념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

“유례없는 뮤지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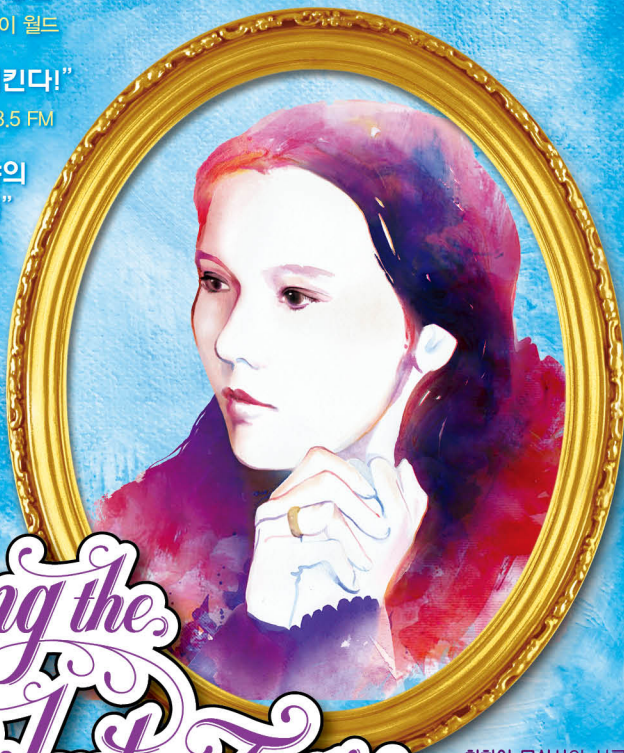
—브로드웨이 월드

“독특하고 마음을 고양시킨다!”

—KOST 103.5 FM

“각 음악 분야의
진정한 대가들”

—MTV



Loving the Silent Tears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가사

the **MUSICAL**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찾기를

정상급 예술가들과
창작 팀의 합작품

15 그레미상 **4** 아카데미상 **3** 토니상 **6** 에미상

1010 DVD-9

공연 뒷이야기 수록

4 DISC SET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찾기를



독일 슈바르츠발트
1980년대 초
사진 제공: 의학박사 톨프 G.

시인 **칭하이 무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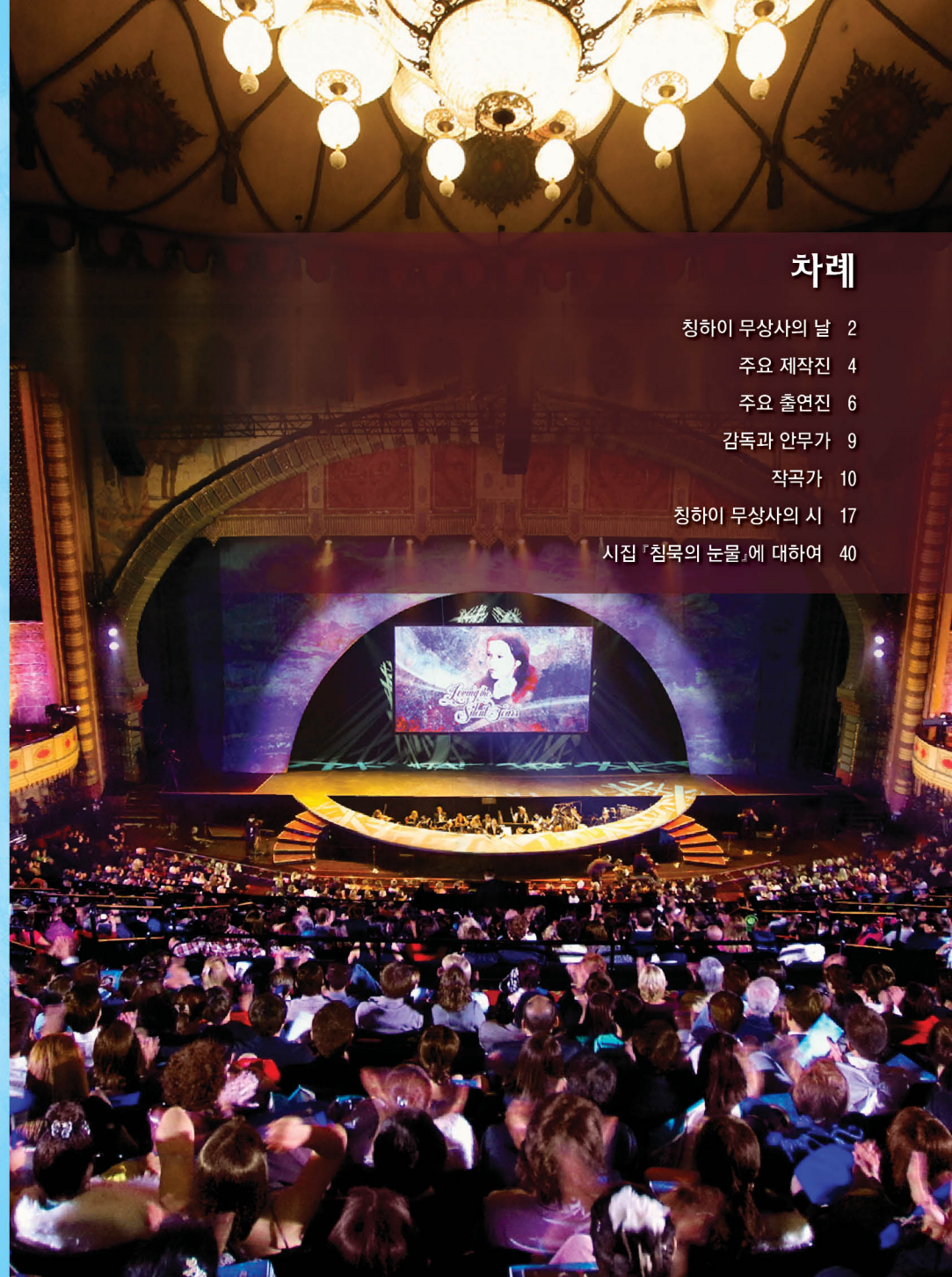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찾기를

영감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이자 인도주의자, 시인, 예술가인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 시집의 시구는 인류가 내면의 평화를 구하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기쁨과 고난을 반영한다. ‘침묵의 눈물’은 신을 알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을 나타내며, 뮤지컬의 제목은 이 감동적인 시집의 시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뮤지컬은 2012년 10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상영되었다. 관객들은 북미 공연장 중에서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세계 정상급 예술가들의 공연을 통해 6대륙 16개국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했다.

이 세계 초연은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이날은 칭하이 무상사의 인도주의 활동과 평화를 주창하는 노고를 기리고자 저명한 미국 시장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에 6천 명이 넘는 관객들이 마음을 고양시키는 평화와 자선, 예술 경축 행사에 참여했다.



차례

칭하이 무상사의 날	2
주요 제작진	4
주요 출연진	6
감독과 안무가	9
작곡가	10
칭하이 무상사의 시	17
시집 『침묵의 눈물』에 대하여	40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 기념



'공로상'을 수상한 칭하이 무상사.
오른쪽은 프랭크 F. 파시 시장.
-미국 하와이 (1993년 10월 25일)

1993년 프랭크 F. 파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장은 감화를 주는 영적 스승이자 인도주의자, 시인, 예술가이며 헌신적인 세계 시민인 칭하이 무상사의 박애 활동과 평화를 증진하는 노고를 기리고자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다.

시상식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공로상과 명예 시민권, 동상도 수여받았다.

칭하이 무상사는 보편적인 평화와 자비의 메시지로 전세계 수백만 명을 감동시켜 왔다. 어울락(베트남)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럽에서 공부하며 그곳 적십자사에서 일했다. 인류의 아픔에 대한 구제책을 찾으려는 깊은 갈망은 그녀를 히말라야로 이끌었고, 그녀는 마침내 그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전세계 정부와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을 하며 대중들과 관음법문을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 큰 기쁨과 성취를 얻고 있다.

익명의 기부를 제외하고도 칭하이 무상사는 지금까지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여 다양한 재난에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콜롬비아와 아이티부터 수단, 스리랑카,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재민과 난민, 퇴역 군인, 노인, 고아, 노숙자, 중병 환자,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동물 이웃들 모두가 그녀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 왔다. 지난 수년간 전세계 정부는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기부 활동과, 그 자선 기금의 재정원인 그녀의 예술 창작품에 경의를 표했다. 한편 칭하이 무상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와 의미가 풍성한 시집은 특히 음악과 예술로 구현됨으로써 대중들에게 한층 더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의 정신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평화와 사랑, 친절이 널리 퍼지길 기원한다.



칭하이 무상사 (버건 채식인)
2009년 8월 8일

**“그녀는 위대한 사람의 빛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 프랭크 F. 파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장 (1993년 10월 25일)

칭하이 무상사는 전세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과 관심 어린 지원을 전하신다.



1. 유기견 구조
-헝가리 (2005년 3월 1일)
2. 아비장 고아원
-코트다부아르 아비장
(1995년 8월)
3. 수재민 위로
-미국 캘리포니아 (1997년 1월)
4.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멕시코 (2010년 12월 9일)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년 기념

Loving the Silent Tears

the MUSICAL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가사의 원작 시
칭하이 무상사

작곡

조지 칼란드렐리 • 알 카사 • 더그 캣사로스 • 헨리 크리거
돈 피핀 • 낸 슈와르츠 • 존 세카다 • 데이비드 샤이어

구상
알 카사

시 개작
프랭크 에반스

대본
신시아 루이스 페렐 • 토니 그린

출연

주니어 케이스 • 패티 코헨아워 • 루크 에브렐
카멜리아 아부-오다 • 플로 양카 • 블랙 우후루 • 리즈 갤러웨이 • 데비 그레비티 • 호꾸인호영
마크 자니셀로 • 브라이언 주 • 리엘 콜렛 • 키릴 콜리쉬 • 케이티 맥마혼 • 해더 박
파비아나 파소니 • 존 세카다 • 시아바쉬 샴스 • 사안기 • 조디 와틀리

무대 디자인
존 야코벨리

조명 및 프로젝션 디자인
브라이언 게일

의상 디자인
새릴 마틴
트리나 응우옌

무대 매니저
윌리엄 코이너

제작 매니저
키스 덕슨

캐스팅 감독
마이클 도노반, CSA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라 도지

사운드 디자인
크리켓 S. 마이어스

헤어 및 가발 디자인
크리스티 스테이키

소품 담당
케빈 윌리엄스

제작
피터 피스

음악 감독 및 오케스트라 편곡
더그 캣사로스

안무
보니 스토리

감독
빈센트 패터슨

슈 라 인 오 디 토 리 엄 세 계 초 연

2012년 10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연진



주니어 케이스 (차장)

『뉴욕 타임스』로부터 ‘유클럽’이란 별명을 얻은 주니어 케이스는 태양의 서커스단의 공연 ‘비바 엘비스’와 MGM사의 영화 ‘금발이 너무해 2’, 연극 ‘지붕 위의 바이올린’과 ‘생쥐와 인간’, 오디세이 무용극단과 함께한 전세계 공연에 출연했다.



패티 코헨아워 (조이) 토니상 후보

패티 코헨아워는 수상 경력이 있는 여배우이자 뛰어난 콘서트 솔로 가수로서 ‘오 페라의 유령’의 크리스틴 다예,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의 로사 버드, ‘광장의 빛’과 ‘빅 리버’의 배역 등 다양한 브로드웨이 배역을 초연했다.



루크 에브럴 (피트)

루크 에브럴은 수상 경력이 있는 배우이자 인정받는 젊은 감독이며, 팀 버튼 감독의 ‘혹성 탈출(주연)’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는 유명 TV 시리즈에 특별 출연했으며 연극 무대에서도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카멜리아 아부-오다 (아랍권)

싱어송라이터인 카멜리아 아부-오다의 노래는 미국 HBO의 드라마 ‘안투라지’에 삽입되었다. 그녀는 레바논-팔레스타인계 후손임을 빛내는 독특한 스타일을 창작했으며, 여러 장의 플래티넘 음반을 제작한 그래미상 수상 프로듀서 데니 셀렐로와 일했다.



플로 양카 (프랑스)

매력적인 프랑스 가수이자 배우, 감독인 플로 양카는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공연함으로써 예술 가곡을 포함한 고전 샹송을 되살려 다시 유행시키고 있다. 헬렌 힌트와 연기했고 조나단 드미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기도 한 플로는 미국 공영 라디오(NPR)와 프랑스 국영 방송에도 출연했다.



블랙 우후루 (자메이카) 그래미상 수상

40년의 눈부신 역사를 가진 전설적인 레게 그룹 ‘블랙 우후루’는 창단 멤버인 데릭 ‘덕키’ 심슨과 앤드류 비즈, 카예 스타로 구성돼 있다. 앨범 및 싱글 차트에서 수차례 1위를 거머쥔 블랙 우후루는 레게 음악 사상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리즈 캡러웨이 (호주) 에미상 수상 & 토니상 후보

리즈 캡러웨이는 ‘캣츠’, ‘미스 사이공’, ‘베이비’ 등의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주연을 맡았다. 레코딩 아티스트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리즈의 노랫소리는 ‘아나스타샤’, ‘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 2’, ‘알라딘’ 속편 등의 애니메이션에서 들을 수 있다.



데비 그라비티 (미국) 토니상 수상

데비 그라비티는 브로드웨이에서 크게 호평 받는 배우 중 한 사람이며 교향곡 청중들이 좋아하는 가수로서 전세계 백여 개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했다. ‘제롬 로빈스의 브로드웨이’로 토니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호꾸인호영 (어울락/베트남) 비건 채식인

어울락(베트남)이 사랑하는 호꾸인호영은 ‘시상식의 여왕’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뛰어난 재능과 차트 1위곡들로 수많은 굵직한 상을 수상했다. ‘신세대 디바’로 불리며 종종 세계 무대에서 자국을 대표하곤 한다.



마크 자니셀로 (이탈리아) 채식인

이탈리아 테너 마크 자니셀로는 배우이자 작가, 감독, 화가, 작사가로서 20여 편의 뮤지컬과 30편의 오페라, 100여 편의 국제적 TV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다. 프랭크 시나트라와 함께 음반을 녹음했으며, 라이자 미넬리, 칩 코리아 같은 대스타들과 같은 무대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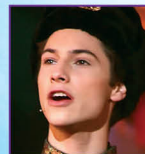
브라이언 주 (대한민국)

한국의 팝/R&B 물결과 함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멤버로 데뷔한 브라이언은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로서 전 지구적인 팬들을 거느린 성공한 솔로 가수이기도 하다. 많은 최고의 음악상을 수상하고 싱글 차트 1위를 했으며, 한국판 뮤지컬 ‘웬트’ 공연에서도 주연을 맡았다.



리엘 콜렛 (이스라엘)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 허비 행콕, 패티 라벨, 스콜피온스를 비롯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도 함께 노래한 이스라엘의 가수 리엘 콜렛은 음악으로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녀의 앨범 ‘희망의 서광(Ray of Hope)’은 수차례 그래미상을 수상한 프로듀서 움베르토 가티카가 제작했다.



키릴 콜리쉬 (러시아) 토니상 수상

‘빌리 엘리어트’에서 주연을 맡아 15세에 토니상을 수상한 키릴 콜리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배우이자 가수, 음악가, 춤의 천재이다. 그는 2011년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진정한 사랑’에 특별 출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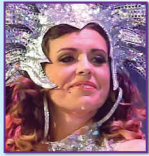
케이티 맥마혼 (아일랜드)

‘리버댄스’의 리드 보컬로 잘 알려진 아일랜드의 케이티 맥마혼은 차트 1위를 차지한 오리지널 싱글곡에서 고음의 소프라노 솔로를 맡았고, 5년간 국제적 찬사를 받은 순회공연을 했다. 또한 합창단 ‘아누나’의 솔로 가수이자 ‘시크릿 가든’의 리드 보컬이기도 했다.



헤더 박 (대한민국) 비건 채식주의

두 장의 앨범을 발매한 한국 가수 헤더 박은 소울, R&B, 힙합, 포크를 조합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그녀는 프로듀서 론 브라우즈와 공동 작업을 했으며, 그녀의 음악은 일본에서 발매 계약을 맺었고, 영화 ‘웨스트 32번가’에 삽입되기도 했다.



파비아나 파소니 (브라질)

2012년 ‘국제 브라질 언론상’ 심사단에 의해 미국 내 ‘최고의 브라질 여가수’로 선정된 파비아나 파소니는 정평이 난 앨범과 라이브 공연에서 재즈 록과 브라질 리듬을 결합하여 자신의 문화와 삶에 대한 열정을 보여 준다.



존 세카다 (쿠바) 그래미상 2차례 수상

2천만 이상의 앨범이 판매된 하바나 태생의 싱어송라이터 존 세카다는 글로리아 에스테반, 팬디 무어, 리키 마틴 같은 스타들에게 1위 히트곡들을 작곡해 주기도 했다. 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리스’와 ‘레베카’ 등에 출연했으며, 자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시아바쉬 샴스 (이란)

페르시아의 팝 아이콘이자 작곡가, 음반 제작자인 시아바쉬 샴스는 앨범 판매량이 수백만 장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 공연이 매진되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중동/페르시아 음악과 서양 음악을 접목한 개척자이며, 그와 부인은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입양한 두 아이의 다정한 부모이기도 하다.



사안기 (중국) 채식주의

중국의 유명 팝스타 사안기(케이 체)는 음반이 백만 장 이상 판매된 싱어송라이터로서 차트 1위곡들로 홍콩의 주요 음악상을 많이 수상했고 중국에서도 인정받았다. 광둥어 팝의 여왕인 그녀는 풍부한 사상이 담긴 곡들 때문에 ‘민중의 노래하는 여왕’이라고도 불렸다.



조디 와틀리 (아프리카) 그래미상 수상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최다 후보로 지명된 가수 중 한명이자 팝/R&B의 아이콘인 조디 와틀리는 음악과 영화, 춤, 패션 분야의 선구자로서 지난 30년간 32곡의 노래가 차트 10위권에 들었고 13곡의 싱글이 1위에 올랐다. 그녀는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으며, 시간을 내어 자선 활동에 참여한다.

감독과 안무가



빈센트 패터슨 감독

토니상 후보

빈센트 패터슨은 브로드웨이, 오페라, 순회공연, 영화, 뮤직비디오, TV 프로그램,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앞다투어 찾는 감독 겸 안무가다. 빈센트는 마이클 잭슨의 ‘빗 잇’과 ‘스릴러’ 뮤직비디오에서 춤을 추었고, ‘스무드 크리미널’과 영화 ‘문워치’의 춤 동작을 구상하고 창작했다. 또한 이 팝의 황제의 ‘배드’ 월드 투어와 그래미상 시상식 공연,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감독과 안무가를 역임했으며, 마돈나의 ‘블론드 앰비션(Blond Ambition)’ 월드 투어와 MTV 시상식 공연의 감독과 안무, ‘익스프레스 유어셀프(Express Yourself)’ 뮤직비디오의 안무를 맡았다. 브로드웨이에서는 ‘거미여인의 키스’의 안무를 맡아 토니상 후보에 올랐고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는 피터 홀 감독의 ‘레니’의 안무를 맡았다. 태양의 서커스단의 ‘비바 엘비스’ 공연을 집필하고 연출했다. 오페라 분야에서는, 안나 네트렙코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출연한 마스네의 ‘마농’을 감독하고 안무했다. 빈센트가 참여한 영화로는 마돈나 주연의 ‘에비타’, 시드니 폴락 감독의 ‘하바나’,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버드케이지’, 비요크가 출연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어둠 속의 댄서’ 등이 있다. 그의 댄스 영화 ‘애가(Threnody)’는 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보니 스토리 안무가

에미상 수상

많은 연에게 최고의 감독, 배우들과 함께 작업해 온 보니 스토리는 케니 오르테가 감독의 디즈니 채널의 인기 영화 ‘하이스쿨 뮤지컬’ 1, 2, 3편의 안무로 에미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2년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의 공동 안무를 맡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으로는 드라마 ‘천사의 손길(Touched by an Angel)’과 MTV, 디즈니가 제작한 여러 편의 영화, 디즈니 채널의 많은 코너들이 있다. 그녀는 슈가볼, 오렌지볼, 리버티볼 등의 하프타임 쇼에서 안무를 맡았으며, 태양의 서커스단의 ‘비바 엘비스’ 공연의 안무가였다. 빈센트 패터슨 감독의 ‘듀크 엘링턴’ 프로젝트에서도 안무를 맡은 바 있다.

작곡가



조지 칼란드렐리 그래미상 6차례 수상, 오스카상 2차례 후보

뛰어난 재능으로 미국, 중남미, 유럽에서 많은 구애를 받는 조지 칼란드렐리는 팝, 재즈, 라틴 음악, 클래식 분야의 작품으로 찬사를 받아 왔다. 그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셀린 디온, 제니퍼 로페즈, 스팅, 토니 베넷 같은 수많은 가수들의 곡을 편곡, 작곡, 제작했다. 그의 영화로는 '와호장룡(아카데미상 후보곡 '월광애인')', '위대한 명탐정 바실', '컬러 퍼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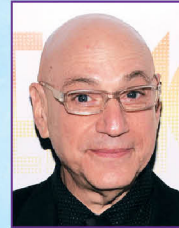
알 카샤 아카데미상 2차례 수상

알 카샤의 히트 음반들은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아레사 프랭클린, 헬렌 레디, 도나 서머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수들에 의해 50여 년간 불리었다. 그의 오스카상 수상곡으로는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모닝 애프터', '타워링'의 '다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으리(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가 있다. 또한 영화 '모든 개들은 천국에 간다'와 '피터의 용'의 삽입곡을 작곡했고, 브로드웨이 작품 '7인의 신부'와 '데이비드 코퍼필드'로 각각 토니상 최고 영화 음악상 후보에 올랐다.



더그 캣사로스 에미상 수상

더그 캣사로스는 '푹루즈', '라이프', '알타 보이즈', '독식 히어로(The Toxic Avenger)', '내 이름은 앨리스(A... My Name Is Alice)' 등의 브로드웨이와 오프브로드웨이 작품, 그리고 브로드웨이로 진출할 게 확실한 '사랑의 은하수' 등에서 지휘와 작곡, 오케스트라 편곡 및 편곡을 맡았다. 그가 프랭크 시나트라, 글로리아 에스테판과 같은 수많은 최고의 가수들에게 제작해 준 음반들은 50만 장, 1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애니메이션 '틱(The Tick)'과 메이시스 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위한 음악, '바이 멘넨(By Mennen)' CM송도 작곡했다.



헨리 크리거 그래미상 2차례 수상, 오스카상 3차례 후보

헨리 크리거는 20대부터 벌써 오프-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작곡을 시작해 마침내는 브로드웨이의 장기 흥행 뮤지컬 '드림걸즈'를 공동 창작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뮤지컬의 전설적인 곡들로 그래미상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을 수상했다. 초호화 캐스팅의 영화 '드림걸즈'에 삽입된 곡으로 다시 한 번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상에 세 차례 후보로 지명됐다. 또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탭댄스 키드'와 '사이드 쇼'로 토니상을 수상했으며, '사이드 쇼'는 토니상 최우수 작곡상 후보에도 올랐다.



돈 피핀 토니상과 에미상 수상

브로드웨이의 존경을 받는 뮤지컬 감독 겸 작곡가 돈 피핀은 '카바레', '맥 앤 메이بل', '메임', '라카지'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그는 '올리버'로 토니상을, '브로드웨이의 노래: 줄 스타인의 음악(Broadway Sings: The Music of Jule Styne)'으로 에미상을 수상했으며, '코러스 라인'의 오리지널 캐스트 앨범으로 황금레코드상을, 뛰어난 뮤지컬 연출로 드라마 데스크상을 수상했다. 그는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10년 넘게 음악 감독을 역임했으며,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미국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낸 슈와르츠 그래미상 수상

모든 음악 장르를 섭렵한 낸 슈와르츠는 '밤의 열기 속으로', '라이프 오브 파이', '아르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등 잊지 못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삽입곡을 작곡하고 오케스트라 편곡과 편곡을 맡았다. 그녀가 존 윌리엄스,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레이 찰스, 그 외 여러 재즈 가수들에게 편곡해 준 작품들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나탈리 쿨을 위해 만든 세련된 편곡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데이비드 샤이어 아카데미상 수상, 그래미상 2차례 수상

데이비드 샤이어는 영화 '노마 레이'의 삽입곡이자 아카데미상 수상곡 '그냥 그렇게 흘러가네(It Goes Like It Goes)'와 그래미상 수상곡인 '토요일 밤의 열기'의 삽입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줄리 앤드류스, 엘리사 맨체스터 등 수많은 이들이 그의 노래를 불렀다. 브로드웨이에서는 히트 뮤지컬 '베이비'와 '빅'의 삽입곡으로 토니상 후보에 올랐다. 오프브로드웨이 작품으로는 '여기서 시작, 지금 시작(Starting Here, Starting Now)', '클로저 덴 에버'가 있고, 드라마로는 '브루스터의 여인들', '앨리스'가 있다.



주니어 케이스



패티 코헨아워



루크 에브렐



플로 양카



데릭 심프슨



카예 스타



앤드루 비즈



헤더 박



브라이언 주



파비아나 파소니



데비 그레비티



리즈 칼러웨이



사안기



카멜리아 아부-오다



시아바쉬 샴스



리엘 콜렛



키릴 쿨리쉬



존 세카다



마크 자니셀로



케이티 맥마흔



조디 와들리



호꾸인효영

A wide-angle photograph of a theater audience from behind, looking towards a brightly lit stage. The stage features a large, ornate architectural backdrop with columns and arches. Numerous spotlights beam down from the ceiling onto the stage and the audience. On the stage, a group of performers in colorful, traditional-style costumes are lined up. The audience is seated in rows, filling the foreground and middle ground.

칭하이 무상사의 시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30대에 쓰신 시
1980년대 포모사(대만)
원문 영어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스승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신다는데
어찌하여 나의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나요?
베일이 영원토록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눈앞에.

오, 더없이 기쁜 세계의 주님
이 베일을 걷어 주소서!
당신 얼굴을 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은 온 우주에 빛을 쏟아부으시면서
나 홀로 어둠 속에 버려두시는군요!
내 영혼 울고 또 울어 마침내 부서질 지경이지만
당신은 신경 쓰시지 않겠지요.

알아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오니 자애로운 스승님, 지체 마시고
나를 이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당신의 빛 속에서 살게 하소서.
당신의 무한한 은총 속에서 살게 하소서.

내면의 스승

내면의 스승:
영원한 생명의 상징!
우주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힘 있고 자애로운 분.
어떤 이들은 그녀를 아버지, 어머니, 하느님,
만물의 근원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도(道)라 부르며, 또 다른 이들은 낭만적으로
아름다운 신부, 사랑하는 임이라고 묘사한다네.
또 어떤 이들은 본래면목,
대지혜, 완전한 길, 사랑이라 부르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
솔직히 그는 전혀 개의치 않으리.
그러나 그 무엇이 됐든
그 없이는 살 수 없노라.
그녀를 보고 싶은 갈망은 가장 큰 고통.
오직 신묘한 도에 발 디딘 이들만
그 고통을 안다네.
일단 찾기만 한다면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리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빛'과 '소리'를 통해서라네.
천국은 내면에 있노라-지금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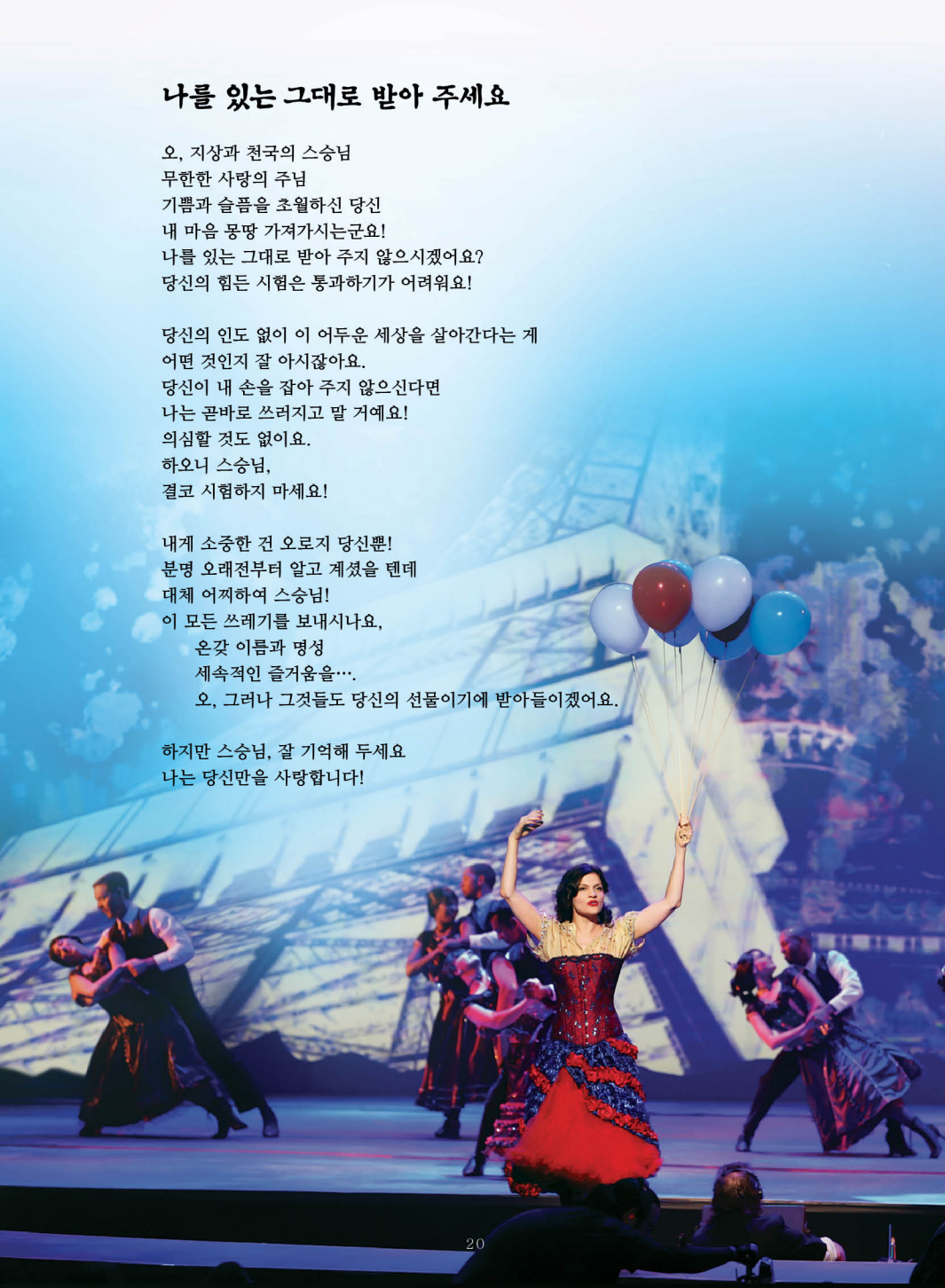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오, 지상과 천국의 스승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신 당신
내 마음 뭉땅 가져가시는군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힘든 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당신의 인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곧바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하오니 스승님,
결코 시험하지 마세요!

내게 소중한 건 오로지 당신뿐!
분명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대체 어찌하여 스승님!
이 모든 쓰레기를 보내시나요,
온갖 이름과 명성
세속적인 즐거움을...
오, 그러나 그것들도 당신의 선물이기에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스승님, 잘 기억해 두세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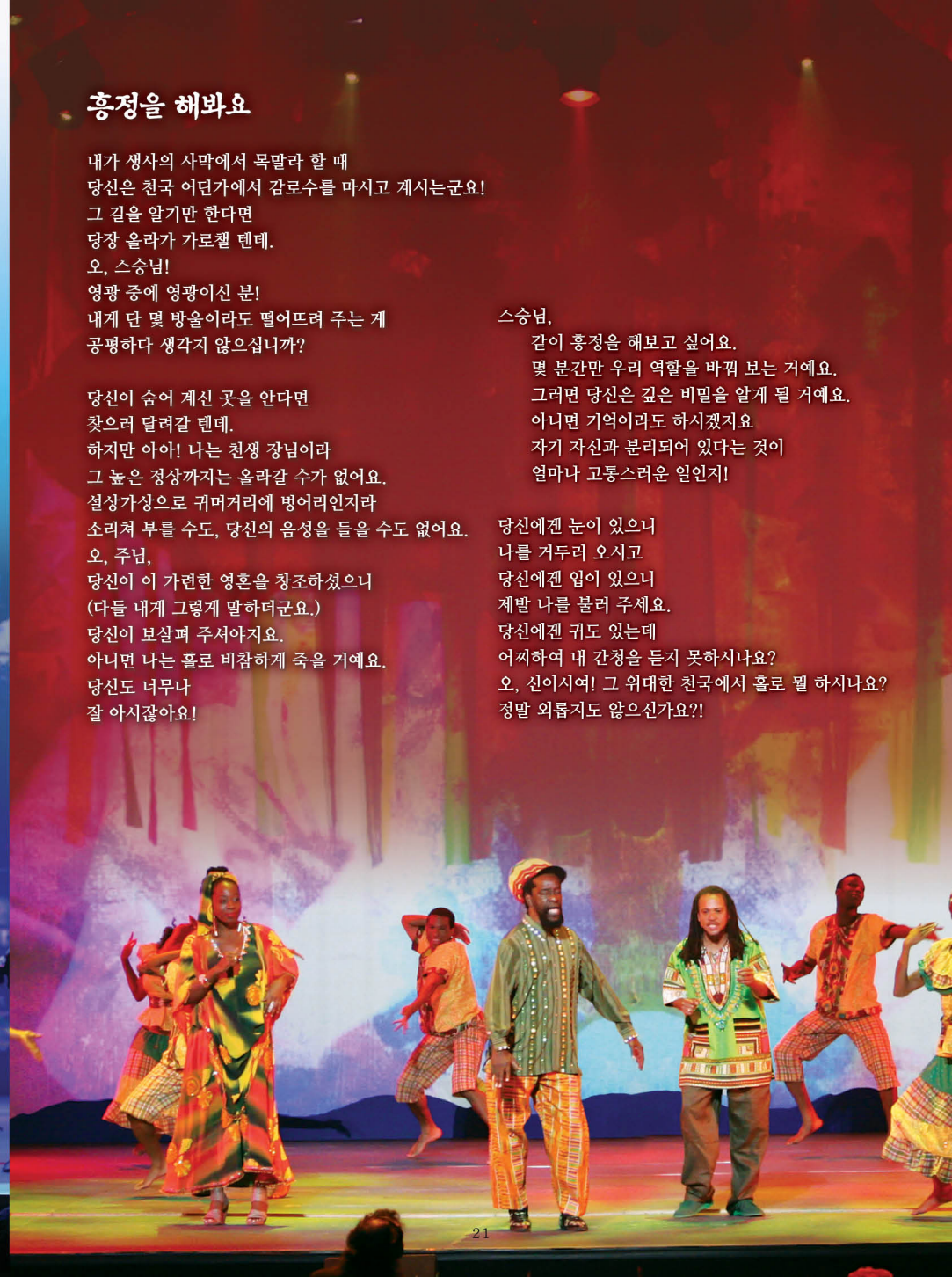
흥정을 해봐요

내가 생사의 사막에서 목말라 할 때
당신은 천국 어딘가에서 감로수를 마시고 계시는군요!
그 길을 알기만 한다면
당장 올라가 가로챌 텐데.
오, 스승님!
영광 중에 영광이신 분!
내게 단 몇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는 게
공평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숨어 계신 곳을 안다면
찾으러 달려갈 텐데.
하지만 아아! 나는 천생 장님이라
그 높은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귀머거리에 병어리인지라
소리쳐 부를 수도,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오, 주님,
당신이 이 가련한 영혼을 창조하셨으니
(다들 내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보살펴 주셔야지요.
아니면 나는 홀로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당신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스승님,
같이 흥정을 해보고 싶어요.
몇 분간만 우리 역할을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깊은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라도 하시겠지요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당신에겐 눈이 있으니
나를 거두러 오시고
당신에겐 입이 있으니
제발 나를 불러 주세요.
당신에겐 귀도 있는데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오, 신이시여! 그 위대한 천국에서 홀로 뭘 하시나요?
정말 외롭지도 않으신가요?!



찬양의 노래

스승은 가장 자애로우신 분.
오, 친구들이여, 그분의 한없는 은총
영원토록 말해도 부족하기만 하다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겸허히 눈물만 흘릴 뿐!

당신이 모습을 드러내시면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리네!
당신의 존재,
수천의 별보다 무수한 보석보다 빛나고
당신의 성스럽고 싱그러운 광채,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을 밝혀 주시네.

오, 간절한 마음
기쁨으로 가득하네!
신성한 즐거움 또한,
당신의 무한한 광휘 속에
세상의 모든 근심, 슬픔 사라지네!

이런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신 분
이 세상에 다시없네.
한 마리 제비 되어
한 발로 선 채
세세생생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 부를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이겠네!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당신에겐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
내겐 오직 당신뿐!
우리 둘 중 누가 더 충실할까요?

솔직히 말해 나 자신이 불쌍해요!
대놓고 불평하겠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 있나요?
나의 스승님은 전혀 관심 없으시겠죠.
내가 온 세상을 저버리고
온갖 즐거움을 포기해도...
음식도 이젠 맛이 없고
밤에는 잠도 이룰 수 없어요.
모두 그분 때문이에요!

스승께서 이런 나를 걱정하시나요?
천만에요!

스승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걸 잊으셨나 보군요
이제는 천안(天眼)이 열려 있으셔서,
그러니 당신을 뵈길 갈망하며 외로이 있는 내가
안 보이시는 거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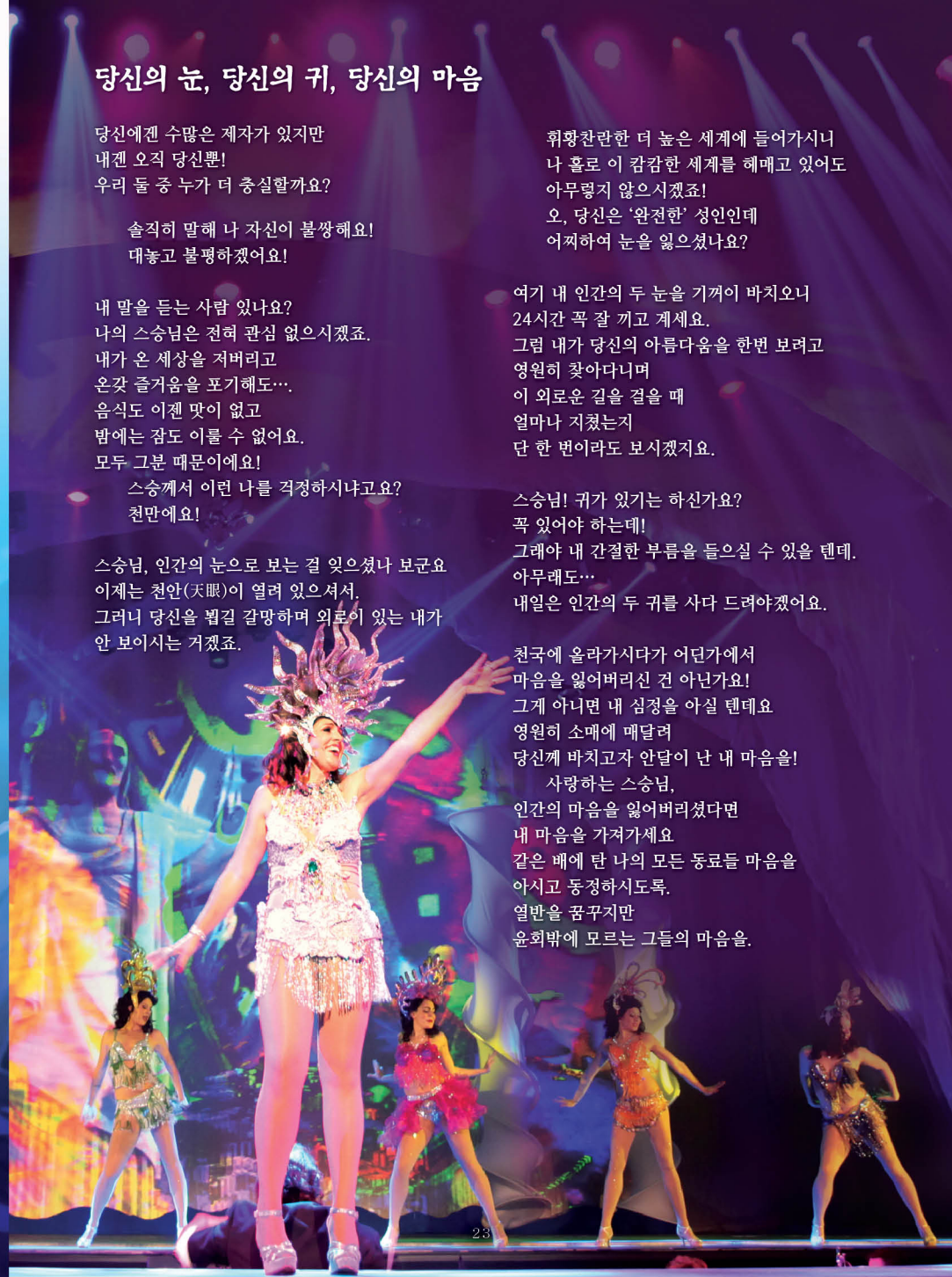
휘황찬란한 더 높은 세계에 들어가시니
나 홀로 이 캄캄한 세계를 헤매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으시겠죠!
오, 당신은 '완전한' 성인인데
어찌하여 눈을 잃으셨나요?

여기 내 인간의 두 눈을 기꺼이 바치오니
24시간 꼭 잘 끼고 계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려고
영원히 찾아다니며
이 외로운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지쳤는지
단 한 번이라도 보시겠지요.

스승님! 귀가 있기는 하신가요?
꼭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 간절한 부름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내일은 인간의 두 귀를 사다 드려야겠어요.

천국에 올라가시다가 어딘가에서
마음을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내 심정을 아실 텐데요
영원히 소매에 매달려
당신께 바치고자 안달이 난 내 마음을!

사랑하는 스승님,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내 마음을 가져가세요
같은 배에 탄 나의 모든 동료들 마음을
아시고 동정하시도록.
열반을 꿈꾸지만
윤회밖에 모르는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자리 없네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데
나만은 당신으로 가득해요!
세상 안에 당신의 자리 마련돼 있다면
모든 번뇌가 사라질 텐데.
그러나 세상은 번뇌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할 줄 안다면
그들의 고통과 슬픔은 끝날 텐데.
하지만 사랑하는 스승님, 난 발견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사랑한다는 것을!

날뛰는 마음

당신께 귀의했을 때
당신은 내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믿습시다, 정말 믿습시다!
그러나 스승님, 하루빨리 실현시켜 주소서
나는 지금 이 어둠의 왕자의 감옥에서 죽어 가고 있으니.

당신은 천국과 지상을 움직이고
악마도 사랑의 천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가장 위대한 마술사님
어찌하여
이 날뛰는 마음은 바꾸지 않으셨나요?!

당신의 손길은 돌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악마도 천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스승님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어루만져
당신 것이 되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이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알고말고요!
이미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신의 피조물이다."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은 내게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찌하여 우시나요?
그 돌 가슴에 갈망이 얼마나 많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눈물, 바다로 흐르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사랑, 조약돌에 주시나요?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어찌하여 열반을 떠나오셨나요?
이곳에 찾을 게 뭐가 있다고?
끝없는 고통 아니면 슬픔?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지금 어서 사바세계를 떠나세요!
슬픔 없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기쁨만 영원한 곳으로
사랑만 있고 경계도 없는 곳으로.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찌하여 미소 지으시나요?
당신의 돌 가슴은 빛으로 가득하군요!
어찌하여 당신의 두 팔 세상을 감싸 안으시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사랑 영원히 빛나나요?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오, 부처님.

2007년 3월 포모사(대만)
시집 『천년의 사랑』에서



세상은 소용돌이

나는 온 창조계의 입.
숨김없이 외치리라
세세생생 끝없이 돌아가는 생사의 바퀴 속에
그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자비로운 스승님께 기도하오니
어서 그것을 끝내 주소서.

세상은 소용돌이
전갈과 뱀으로 가득 차 있네.
그것들이 탐욕과 분노, 증오로 물어뜯으니
사람들은 꿈쩍없이 그 속으로 빠져드네.

오, 스승님, 왕 중의 왕이시여!
부디 저들을 평화의 저택으로 다시 데려가
영원한 봄을 되찾게 하소서.

당신이 누구에게 감미로운 눈길 주실 때면
그이는 자기가 당신의 하나뿐인 연인이라 믿겠지요.
오,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분이시여!
그 눈길, 천 번 만 번 내게 주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눈길 하나 살 수만 있다면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다 팔 텐데.
오, 무한한 빛의 스승님!
자비롭게 이 간절한 마음에 몇 줄기 빛이라도 내려 주소서.



영원한 놀이

아침 내내 나 홀로 앉아
당신을 뵈고자 했던만
당신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또 홀로 앉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은 세상이 내 절박함을 알 텐데!
하지만 당신은 개의치 않으시지요!
칠혹 같은 내 방에서
뜬눈으로 누워 있습니다.
외로운 촛불 하나뿐
당신의 빛은 단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스승님! 갈 테면 가세요!
원하는 대로 가세요.
난 지쳤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어쨌거나 나는 약한 중생일 뿐.
당신도 아시잖아요!
난 그만두겠어요.

추신: 내일까지만요.

오, 스승님,
이 영원한 놀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옛날부터 이어진
이 숨바꼭질이?
영겁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건 현명하건
이 놀이에 얼마나 많은 힘을 뺏었가요!
난 그만두겠어요!
언젠가는 당신 스스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어요.
우리 둘 다 좋을 게 없어요.
이제 이 놀이를 멈추어요!
나는 지금 헐벗은 마음으로
의식을 잃고 당신 문가에 누워 있습니다.
행인들도 다 내 처지를 아는데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오, 자비롭고 은혜로운 스승님!
내 영혼에
생명수를 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일르요!
아니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할 뿐 나를 위해선 아무 바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찾기를.

이는 우리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누려야 할 삶의 본보기.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혹은 바다에 살든
우리 인간이 바라는 삶과 똑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늘이시여, 친애하는 인과의 왕이여,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소서.

궁지에 처한 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위 천국에는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위로 데려가 사랑을 베푸소서.
이것이 모든 존재들을 위한 나의 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자비심만 있으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공존하기를
모두 사랑하며 돌보고 용서하기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실린 시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와 '침묵의 눈물'
시집에서 발췌



입문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열정이 어느 정도 식는데
난 당신과 약혼하고서
열정이 타오르기만 합니다!

스승의 사랑이 내 영혼에 드리워질 때
난 젊은이로 거듭납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

칠팔십 노인에게서
춤추는 눈망울과
생기 넘치는 청춘을 본다면
형제들이여, 알아야 해요
그건 스승의 기적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은 내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사랑의 참뜻을 몰랐겠지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어요
나를 미쳤다고 할 테니까!
정말이지 난 당신의 신성한 감로수에 빠져 버렸습니다.



스승과 나 사이

세상 연인들은 자신들만이

사랑의 고통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지요.

아아! 얼마나 큰 착각인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는지 알아야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밤에 밖에 나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음악에 취해

노래하고 춤추는데

나만은 고요히 앉아

내면의 빛과 선율에

몸을 맡기고 있어요.

당신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극상의 예술!

제아무리 장엄한 초상화라도

생명 없는 조각상을 어찌 다시 숭배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찬미하는 말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어요

세상의 비루한 말로 하기는 부끄럽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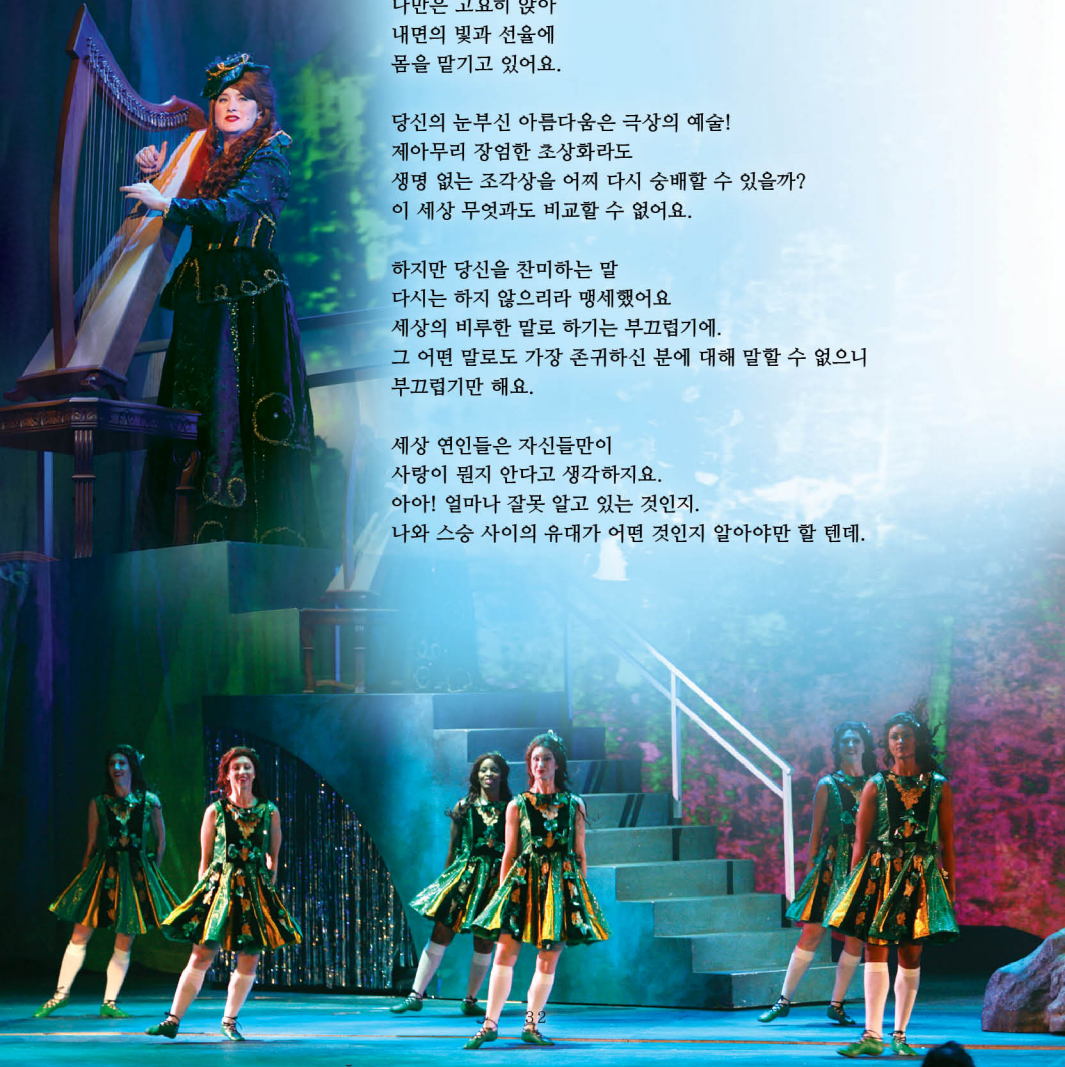
그 어떤 말로도 가장 존귀하신 분에 대해 말할 수 없으니
부끄럽기만 해요.

세상 연인들은 자신들만이

사랑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지요.

아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나와 스승 사이의 유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할 텐데.



진리와 예고, 영혼, 축복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하니

나도 그들처럼 따라 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입만 열면 '진리'가 방울방울 쏟아지더군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자

당신의 거룩한 모임에 들었는데

가장 힘든 일을 요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 예고를 버리라고 하실 줄이야!

당신의 시는 내가 읽은 가장 감동적인 시.

하지만 사랑하는 스승님,

어찌하여 내 영혼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비밀을

모두 다 밝히셨나요?

남편이 떠난다면

난 거의 못 살겠지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면

난 분명 울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저버린다면

정말이지 비참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외면하신다면, 사랑하는 스승님!

난 죽고 말 겁니다.

나를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의 마음이 어서 피어나길 기도하겠어요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에서 나오는

수천 수만 개 태양 빛의 은총을 통해서, 엘로아!

당신의 축복,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칩니다.

악한 이와 선한 이

아름다운 이와 추한 이

신실한 이와 가치 없는 이

모두에게 똑같이!

오, 스승님,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 부를 길 없이

가슴에 당신의 사랑을 품고

밤마다 함께 잠이 듭니다.

당신이 바다에 눈길 한번 주시면

오, 장엄하신 임이여,

물고기들은 모두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를 겁니다.

그때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인간의 복과 공덕의 들판을 기름지게 할 테지요.



진정한 바보

오, 만물의 주님!

내 운명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은 내게 너무 막중한 큰 사명과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산을 오르려 안간힘을 쓸 때면

돌덩이를 굴려 보내시지요!

스승님! 스승님!

어서,

저를 구하러 와 주세요!

아니면 이 미치광이 신과 산 채로 파묻히고 말 테니!

* * *

난 진정한 바보겠지요

부처가 되려 한다면

완전한 스승이 되려 한다면.

구루!

마하라지!

어찌하여 이 온갖 짐을 제 어깨에 올려놓아

당신 곁에 앓을 귀한 시간을 없애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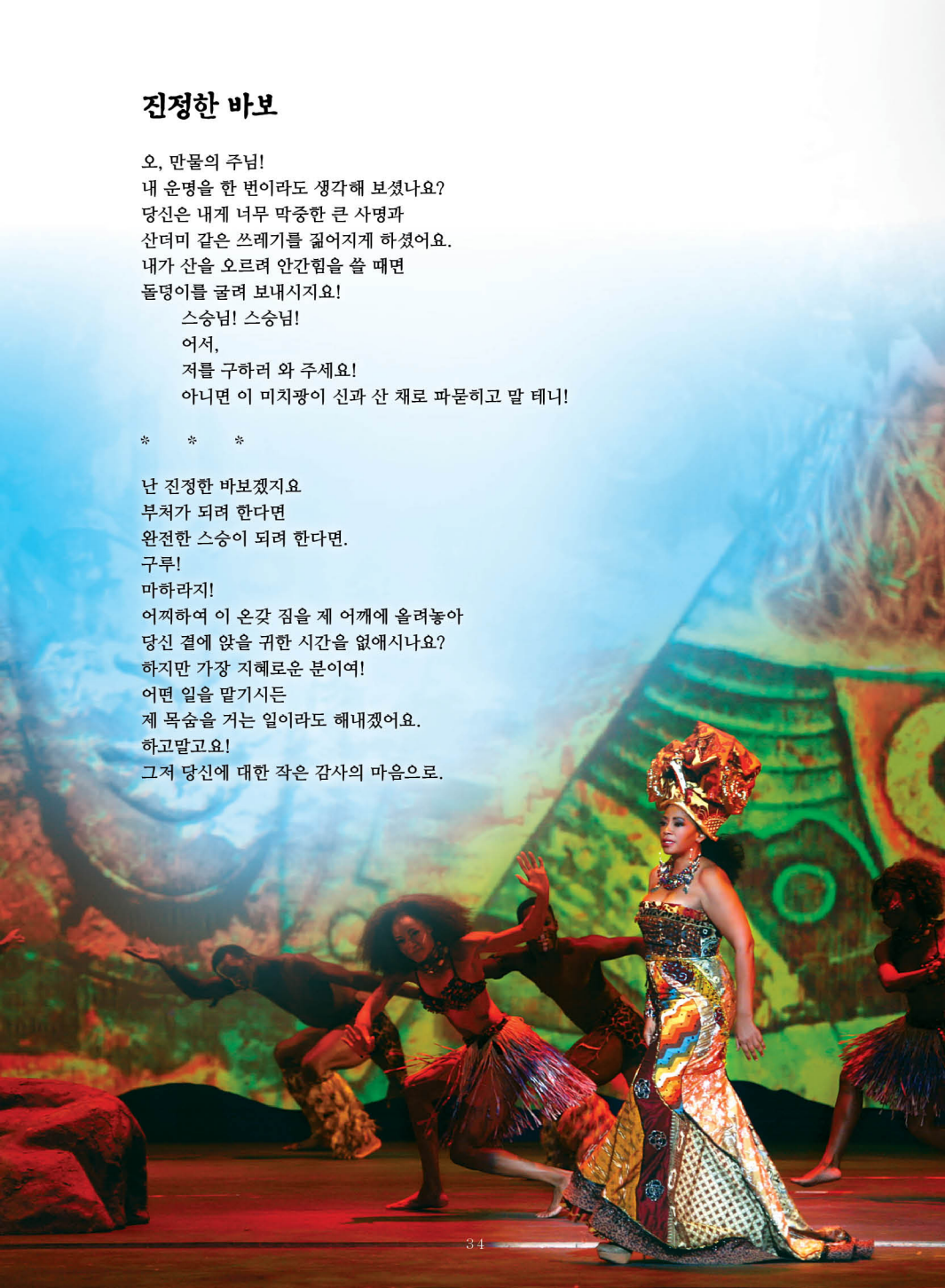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분이여!

어떤 일을 맡기시든

제 목숨을 거는 일이라도 해내겠어요.

하고말고요!

그저 당신에 대한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



깨달음

다들 들어 봤겠지요

위대한 이들은 연화좌를 하고 앉아

깨달음을 얻는다고.

나무 그늘 아래서

산속에서

히말라야에서

혹은 외로운 사막에서

산속 깊은 동굴에서

안거에서, 고요한 사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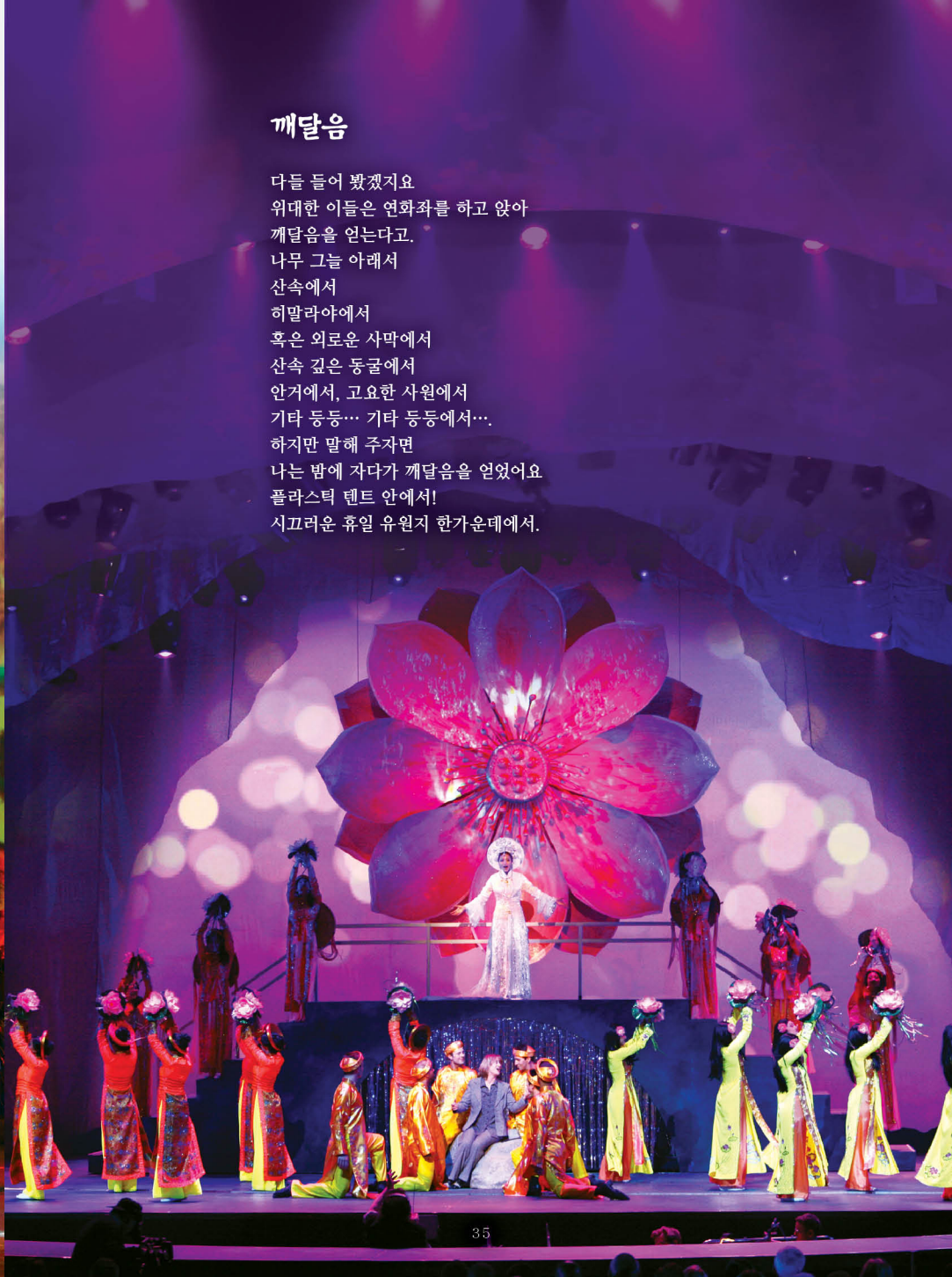
기타 등등... 기타 등등에서...

하지만 말해 주자면

나는 밤에 자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플라스틱 텐트 안에서!

시끄러운 휴일 유원지 한가운데에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별들도 때로는 밤에 잠이 들건만
나만은 영원히 깨어 있어요.
당신이 내 영혼의 신성한 열정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우리 둘 다 제대로 잠들 수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둘의 비밀을 밝힐 수 없어
그것을 빛나는 베개로 만들어
내 꿈의 세계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해와 달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사계절도 때가 있으며
날씨도 늘 변하건만
어째서 나의 갈망은 결코 끝나지 않는 건가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상념은 시가 되어 흘러나와요.
오, 가장 아름다운 분이여!
그건 당신의 선율이 내 안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여의주의 왕이여,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기는 한가요?



서로의 손을 잡아요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요!
겨울 바닷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울부짖는 바람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웃을 수도 있는데
왜 울어야 하나요?
기쁨을 버리고
왜 고통을 찾아 나서나요?

서로를 꼭 껴안고
자비롭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고통 그치고
그러면 사랑이 세상을 밝힐 테니.
곳곳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고
천국과 인류에게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서로의 손을 잡아요.
혼돈의 경계 위로 날아올라
삶을 내려다봐요.
우리 웃음이 천상과 지상에 울려 퍼져요.
사랑하는 이여!
서로의 손을 잡아요

시집 '조약돌과 황금'과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시집 『침묵의 눈물』

“나는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 애쓰는 인류를 보며 공감이 갑니다. 높은 등급의 깨달음 같은 거의 불가능한 것 말입니다. 성인이든 죄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우리 모두 그것을 겪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분투해야 하지요. 나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느낍니다. 시는 내면에서 나왔습니다. 인류의 분투와 고통에 이입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도 절망하고 내면으로 행해야 하는 순간이 있으며, 그때 그들은 뭔지도 모르는 어떤 힘에 기도하고, 믿지도 않았을 신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늘 분투합니다. 내 시집 『침묵의 눈물』은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집 『침묵의 눈물』
칭하이 무상사가 30대에 쓰신 책
1980년대 포모사(대만)

- 칭하이 무상사

2012년 12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마스터 TV 제작진과의 화상회의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 기념

“영성이 충만한 시” -플레이빌

“시와 음악, 춤의 환상적인 밤” -CATV/ KCAL-TV

“예술적이고 낙천적인
이타주의가 빛난 오후다운 오후” -패서디나 매거진



DISC 1

- 레드 카펫
- 궁중 곡예 오프닝:
드라마월드 곡예단
- 정부 축하: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커런 프라이스 주니어
- 초청 연사: 조지 차키리스
- 영상 인사: 칭하이 무상사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제1막

DISC 2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제2막
- 영상 소개: 칭하이 무상사의 날
- 자선 단체 선물 증정:
브로드웨이 케어즈 &
에이즈와 싸우는 배우 조합
국제동물보호협회(ADI)
국제 수의사 봉사협회
- 축하 피날레: '서로의 손을 잡아요'
- 비건 채식 연회

DISC 3

- 보너스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제작 이야기
- 예술 전시회
- 영감

DISC 4

- 보너스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매체 보도:
1부-행사 전 매체 보도
2부-행사 후 매체 보도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칭하이 무상사의 심오한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영감을 받은 이 화려한 뮤지컬은 우리를 마법 열차에 태워 6대륙 16개국을 넘나들게 해준다. 우리와 동행하는 이들은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어머니 조이와 세속적인 청년 피트. 그들은 유쾌하면서도 신비로운 차장의 인도를 받아 각자 새로운 평화를 찾는 일생의 여정에 오른다. 각 역에 이를 때마다 아카데미상·그레미상·토니상·에미상 수상 작곡가들이 만든 숨을 멎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브로드웨이 스타와 팝스타, 정상급의 세계적인 가수들, 뛰어난 48명 무용수들의 공연과 라이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펼쳐진다!

2012년 10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토리엄에서 이루어진 멋진 세계 초연은 토니상 후보로 지명된 빈센트 패터슨(마이클 잭슨 및 마돈나의 월드 투어)이 감독하고 에미상을 수상한 보니 스트로(뮤지컬 하이스쿨 1, 2, 3)가 안무를 맡았으며, 기술진 217명이 참여해 21대의 카메라, 96개의 디지털 오디오 채널로 담았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기념하는 이 뮤지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이자 인도주의자, 시인, 예술가가 귀감을 보인 평화와 배움의 정신을 기린다.

4장의 디스크로 구성된 이 세트에는 시인의 영상 인사와 자선 기부금 전달식, 예술가들의 인터뷰와 멋진 보너스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통해 우리 모두 분별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가사의 원작 시 칭하이 무상사 / 작곡 조지 칼란델리·알 카사·더그 캣사로스·헨리 크리거·돈 피핀·넌 슈와르츠·존 세카다·데이비드 사이어 / **초청 연사** 조지 차키리스 / **행사 사회** 수지 카스틸로·코리 펠드만·켈리 팩터드·크리스토프 세인트 존 / **출연** 주니어 케이스·패티 코헨아워·루크 에브랄·카멜리아·아부-오다·폴로 앙카·블랙 우후루·리즈 캘라웨이·데비 그레비티·호구인호영·마크 자니셀로·브라이언 주·리얼 콜렛·키릴 클리시·케이티 맥킨온·헤더 박·파비아나 파소나·시아바쉬 삼스·존 세카다·산티아·조지 와들리 / **구성** 알 카사 / **시** 개작 프랭크 에반스 / **대본** 신시아 루이스 펠렐 & 토니 그린 / **감독** 빈센트 패터슨 / **안무** 보니 스트로 / **무대 디자인** 존 야코벨리 / **조명 및 프로젝션 디자인** 브라이언 게일 / **의상 디자인** 새릴 마틴 & 트리나 응우엔 / **오케스트라 편곡 및 음악 감독** 더그 캣사로스 / **제작** 피터 피스 / **무대 매니저** 윌리엄 코이너 / **제작 매니저** 키스 딕슨 / **소품 담당** 케빈 윌리엄스 / **사운드 디자인** 크리스티 S. 마이아스 / **헤어 및 발 디자인** 크리스티 스테이키 /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라 도지

특별 수록

스타들과 창작진의 공연 뒷이야기 인터뷰·매체 보도·저명인사의 레드 카펫
뮤지컬 제작 이야기·시집 『침묵의 눈물』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의 영감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 작품 전시회·24개 언어 자막

COLOR / APPROX. 7 HRS 15 MINS

Subtitles (24): English 英語, Àu Lạc, Български, 简体中文, 正體中文
Français, Deutsch, עברית, हिन्दी, Magyar, Indonesia, Italiano
日本語, 한국어, Malaysia, Монгол, فارسی, Polski, Português
ਪੰਜਾਬੀ, Русский, Español, ไทย



SUPREME MASTER TELEVISION

www.SupremeMasterTV.com
peace@SupremeMasterTV.com
122-A East Foothill Blvd. #306
Arcadia, CA 91006 USA
www.SilentTearsMusical.com



Distributed by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OceanofLoveEntertainment.com

COPYRIGHT © 2014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Printed with soy-based inks.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WWW.SMCHBOOKS.COM IF, NO. 236, SONGSHAN ROAD, TAIPEI, FORMOSA (TAIWAN), R.O.C.